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개교 43주년 기념

제10회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

이태석과 섬김의 리더십

| 일시 | 2022년 5월 30일(월) 14:00-15:50

| 장소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SERO 스튜디오

| 주최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 주관 | 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인사말

2년이 넘는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이 차츰 잦아들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의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다 같이 모여 이태석 신부를 기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아직 남아 있는 감염병의 여파로 올해도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을 비대면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10회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이태석 신부가 남수단에서 하던 봉사를 영화「울지마 톤즈」를 통해 전국에 소개해 주신 사단법인 이태석재단의 구수환 이사장, 그리고 인제대학교에서 이태석 신부에 대하여 가장 깊이 있는 연구를 해 오신 의과대학 인문사회연구소의 김택중 교수와 김성리 교수를 모시고 이태석 신부의 섬김의 리더십을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한 이태석 신부의 발자취를 다시 돌아보며 그가 남긴 열매가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앞으로 미래사회를 살아가면서 이태석 신부가 행동으로 남긴 뜻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심포지엄은 감염병이 완전히 종식되어 모두 함께 모여 이태석 신부를 기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5월 30일
제10회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을 맞으면서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최석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개교 43주년 기념

제10회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

- | 주제 | 이태석과 섬김의 리더십
- | 일시 | 2022년 5월 30일(월) 14:00-15:50
- | 장소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9층 SERO 스튜디오

프로그램

14:00 - 14:10 개회식

개회사..... 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 소장 **김택중**
 인사말.....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최석진**

14:10-15:10 주제발표

14:10-14:30

내 마음을 움직인 아름다운 향기 (사)이태석재단 이사장 **구수환**

14:30-14:50

이태석과 삶의 영성 인제의대 인문사회연구소 교수 **김성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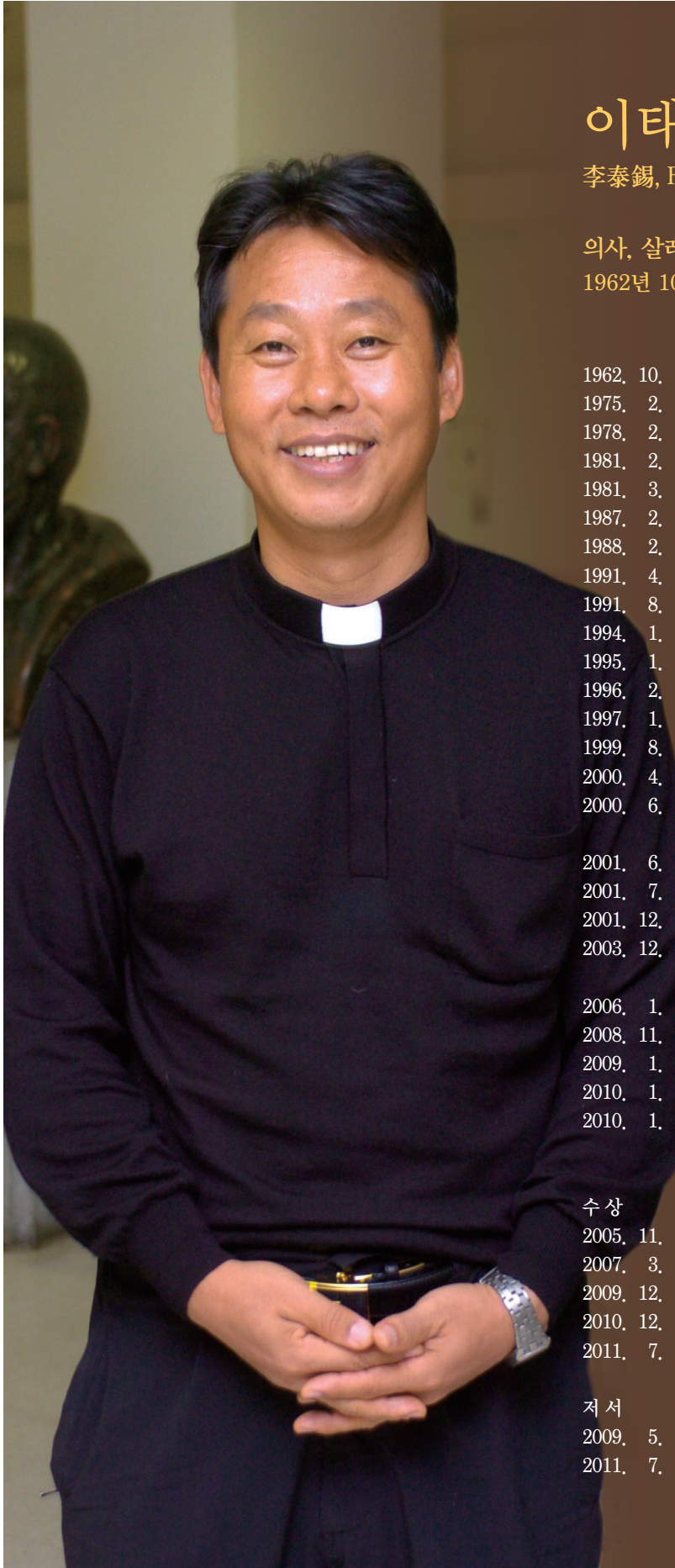
14:50-15:10

백인제와 인술제세의 열매 이태석 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 소장 **김택중**

15:10-15:45 종합토론

..... | 사회 | 인제의대 인문사회연구소 교수 **박지영**
 | 패널 | **구수환, 김성리, 김택중**

15:50 폐회



이태석

李泰錫, Fr. John Lee Taeseok

의사, 살레시오회 수도사제

1962년 10월 17일 - 2010년 1월 14일

- 1962. 10.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출생
 - 1975. 2. 천마초등학교 졸업
 - 1978. 2. 부산대신중학교 졸업
 - 1981. 2. 경남고등학교 졸업
 - 1981. 3.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 1987. 2.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88. 2.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턴 수료
 - 1991. 4. 육군 군의관 전역(대위)
 - 1991. 8. 살레시오회 입회
 - 1994. 1. 살레시오회 첫 서원
 - 1995. 1. 서울특별시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사목실습
 - 1996. 2.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수료
 - 1997. 1.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 유학
 - 1999. 8. 아프리카 남수단 외랍주 톤즈(Tonj) 첫 방문
 - 2000. 4. 살레시오회 종신서원
 - 2000. 6. 부제 서품.
 - 2001. 6.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 신학부 졸업
 - 2001. 6. 사제 서품
 - 2001. 7. 전남 순천시 성가롤로병원 임상연수
 - 2001. 12. 남수단 톤즈 부임
 - 2003. 12. KBS 1TV 「한민족 리포트: 아프리카에서 찾은 행복 - 수단 이태석 신부」 방송
 - 2006. 1. 후원모임 사단법인 수단어린이장학회 결성
 - 2008. 11. 대정암으로 투병 시작
 - 2009. 1. 후원모임 미주 아프리카 희망 후원회 결성
 - 2010. 1. 신종(14일 오전 5시 35분)
 - 2010. 1. 전남 담양군 천주교 광주교구 공원묘원 내 성직자-수도자묘역 안장(16일)
- 수 상
- 2005. 11. 제7회 인제인성대상 특별상 수상
 - 2007. 3. 제23회 보령의료봉사상 본상 수상
 - 2009. 12. 제2회 한미자랑스런의사상 공동 수상
 - 2010. 12. 제1회 한국방송공사(KBS) 감동대상 대상 추서
 - 2011. 7. 제1회 국민추천포상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 저 서
- 2009. 5. 저서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생활성서사)
 - 2011. 7. 유고 강론 모음집 「당신의 이름은 사랑」(다른우리)

내 마음을 움직인 아름다운 향기

지난 5월 초 KBS 라디오에서 ‘화제의 인물코너’에 모시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얼마 전까지 PD로 일을 했는데 외부 출연자로 초대를 받다니 기분이 묘했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한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기뻐다. 방송 스튜디오에 도착하자 진행 아나운서가 선배님이 만든 프로그램의 애청자라며 반갑게 인사를 한다. 30분 동안 이태석 신부와 제자들, 이태석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방송이 끝나자 아나운서가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진정성이 느껴져 감동했습니다.”라며 인사를 하고 정말 궁금한 것이 있다며 묻는다. “퇴직한 선배들을 만나면 세월의 그림자가 묻어 보이는데 선배님은 방송 현장에 있을 때 모습 그대로이고 무척 행복해 보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태석 신부처럼 살아보려고 애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태석 신부를 만난 것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이다.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삶의 자신감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 신부의 48년 삶을 잘 보여주는 글이 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홉을 가진 부자는 하나만 주면 열이 되지만, 하나를 가진 가난한 사람은 아홉을 주어야 열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글을 통해 이 신부의 삶이 사제의 삶을 뛰어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삶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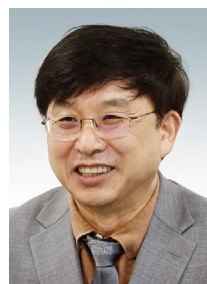
5년 전 행복한 나라로 알려진 북유럽 정치 다큐 다섯 편을 만들었다. 당시 덴마크에서 가장 존경받는 9선의 홀

가 낄슨 의원을 만나 덴마크가 행복한 이유를 질문했다. 그의 답변은 이랬다.

“한국이 덴마크보다 큰 부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게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덴마크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만든 비결입니다.

오늘의 덴마크를 만든 것은 목사이며 정치가인 그룬트비의 평등 정신이다. 그는 교육을 통해 평등 정신을 사회운동으로 확산시켰고 이는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내렸다. 그 결과 특권과 부패가 없고 신뢰가 가득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도 덴마크처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사랑, 경청, 공감 능력이 담겨있는 이태석 신부의 섬김의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신부가 세상을 떠난 지 십여 년이 지났지만 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눈물로 기억하고 그의 제자들이 의사, 약사, 의대생이 되어 스승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부활」과 「울지마 톤즈」를 만들고 강연을 다니면서 아주 흥미로운 체험을 했다. 이 신부를 만난 사람들은 항상 행복해하고 희망을 말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섬김의 정신을 말미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이태석 신부를 만난다면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라고 인사드려야겠다.



구수환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졸업, 문학석사
 현, 사단법인 이태석재단 이사장
 현, 구수환 PD 저널리즘스쿨 교장
 영화 「울지마 톤즈」(2010), 「부활」(2020) 감독
 2021년 도산인상 사회통합상 수상

이태석과 삶의 영성

이태석이 톤즈 마을에 머무른 기간은 만 7년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그가 했던 많은 일들은 톤즈뿐만 아니라 남수단 전체에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사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태석의 뜻을 잇고자 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태석이 생전에 지녔던 공식적인 신분은 의사이며 가톨릭 신부였다. 그러나 그가 수단에서 행한 일들을 보면 의사, 신부, 교육자, 음악가, 자선가 등 여러 개의 페르소나를 보인다.

여러 개의 페르소나가 보이는 공통점은 톤즈 마을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는 이타성이다. 이태석은 내전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남수단 톤즈 마을의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심을 자신의 저서에서 반복하며 말한다. 즉, 그의 페르소나가 지닌 이타성의 본질은 물질적인 도움에 앞선 정신적인 지지로서의 관심이다. 이태석의 삶이 빛나는 이유는 보편적인 구호의 성질인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삶이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살아야 하는 이유와 희망을 부여하고자 한 데에 있다.

실제로 이태석의 자전적인 글인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와 강론 모음집인 『그대 이름은 사랑』을 보면 의사의 길을 사제의 페르소나와 함께한다. 그리고 또 다른 교사로서의 페르소나를 살펴보면, 이태석은 후원금으로 성당을 지어야 한다는 수도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톤즈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고 음악을 가르친다. 이태석은 “장기간의 전쟁으로 건물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도 상처받고 부서져 있었다. 음악을 통해 아이들 마음에 기쁨과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 같아 악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며 음악을 통해 삶을 치유하고자 했다. 톤즈의 아이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꿈을 키워가는 모습에서 어린 이태석이 가난하여 피아노를 배우지 못하고 성당의 풍금을 치던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한다. 이는 이태석의 지

향이 가톨릭 신부를 넘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살린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생명 유지와 함께 삶에 목적과 희망을 준다는 의미도 있다. 오랜 내전과 벗어날 수 없는 가난으로 무력감에 빠진 톤즈 사람들에게 삶은 가치 있는 것을 행동으로 일깨워 준 이태석의 이타성은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치유적 영성과 맞닿아 있다. 영성은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현상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내적 힘을 말한다. 몸의 아픔을 넘어 삶의 고통을 함께 치료하고자 한 의사 이태석, 성당보다 아이들의 교육을 먼저 생각한 요한 신부, 자신의 아픈 기억으로 타인의 행복을 먼저 추구한 인간 이태석의 행로는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의 영성, 바로 인술제세의 발걸음이다.

이태석이 개인의 명예와 안락함 대신 선택한 영성의 길은 ‘사랑으로 의술을 베풀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인술제세의 정신과 함께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영성이 가득 찬 의사 이태석의 발걸음이 어디로 갈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어느 곳에서 멈출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태석이 자신의 존재의 정수(essence)를 초월적인 이타성으로 발현시키고 톤즈 사람들의 삶 속에서 걸어간 내적인 길(inner path)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영감에 가득 찬 또 다른 길을 건게 할 것이다.



김성리

인제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 인제대대 인문사회학연구소 조교수
현, 인제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겸임교수
저서 『김춘수 시를 읽는 방법』, 『다시 봄이 온다, 우리들의 봄이』 외 다수
논문 『시와 의학교육의 만남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외 다수

백인제와 인술제세의 열매 이태석

‘인술제세(仁術濟世)’는 인제대학교 백병원의 창립자이자 초대 원장이었던 외과의사 백인제의 백병원 창립정신이며, 훗날 인제대학교의 창립정신으로도 이어졌다. 인술제세는 흔히 “인술로써 세상을 구한다”는 의미로 뜻풀이한다.

인술제세의 핵심 사상은 유가(儒家)의 시조인 공자의 핵심 사상이기도 한 ‘인(仁)’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인을 가리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그 표현 방식의 하나로서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를 제시하였다. 이는 기독교의 개조(開祖)인 예수가 유명한 산상설교에서 이른바 황금률이라 하여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라고 발언한 것과 개념적으로 일치한다. 즉, 공자의 인과 예수의 사랑은 가치론적으로 서로 일치한다.

공자는 인을 실천함에 있어 극기복례(克己復禮), 곧 “자기를 이기로 예로 돌아가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 인의 표현 방식이 ‘예(禮)’라는 의미이다. 이후 맹자는 예를 인간의 본성인 인·의·예·지 중 하나로 꼽았으며, 예를 가리켜 “겸손하게 남을 섬길 줄 아는 마음”이라는 의미의 ‘공경지심(恭敬之心)’으로 정의하였다.

백인제에게 강력한 사상적 영향을 끼쳤던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는 공자의 유가 사상과 예수의 기독교 사상을 모두 받아들인 인물이었다. 그는 공자의 인과 예수의 사랑을 평생 예로써 실천한 예의 바른 신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립과 분열이 일상이었던 중국 상하이 교민사회에서 임시정부를 조직할 때 그가 “나는 여러분의 머리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러 왔습니다.”라고 선언한 것이 이를 웅변한다. 이러한 도산의 공경지심은 말년에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라”는 ‘애기애타(愛己愛他)’의 철학으로 이어졌다.

인과 예, 곧 사랑과 섬김을 강조하는 유가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오늘날 리더십의 표상으로 각광받고 있는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 곧 섬김의 리더십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현대 사상가들도 진정한 리더란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는 남에게 필요한 것을 우선하는 사람”이라는 데 동의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공자와 예수 역시 마찬가지다. 공자는 “사람이면서 인하지 못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찌 예를 행할 수(사람을 섬길 수) 있겠는가?”라 하였고, 예수는 보다 직접적인 표현으로써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 하였다.

동아시아와 서구의 사상적 전통을 모두 흡수하여 나에 대한 충실을 바탕으로 평생 남을 사랑하고 섬긴 도산 안창호는 섬김의 리더십의 역사적 전범(典範)이었다. 도산 생전 그와 친분이 두터웠고, 사상적으로도 도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도산이 설립한 흥사단의 고위 단원이기도 했던 백인제의 인술제세 정신은 도산의 섬김의 리더십의 의(醫)적 발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상적 자장 안에서 인제의대를 졸업한 이태석 신부의 생전 행적을 돌이켜 보면 그를 과연 인술제세의 실질적인 열매로 칭하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김택중

인제의대 의학과 졸업
 인제대학교 대학원 졸업, 의학박사(의사학)
 현, 인제의대 인문사회연구소 부교수
 현, 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 소장
 현, 대한의사학회 부회장

이태석의 삶

의사이자 살레시오회 수도사제였던 이태석. 세례명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래서 그의 선교지였던 아프리카 남수단의 오지 톤즈(Tonj) 마을 사람들은 이태석의 세례명에 성을 덧붙여 그를 '쥘리(John Lee)'라고 불렀다. 20년 넘게 이어진 오랜 내전으로 지치고 상처받은 톤즈 사람들, 특히 아이들에게 쥘리 신부는 자상한 아버지와의 같은 존재였다.

이태석은 1962년 송도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부산광역시 남부민동에서 독실한 가톨릭 집안의 4남 6녀 가운데 아홉째로 태어났다. 홀어머니 슬하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놀이터와도 같았던 집 근처의 송도성당을 다니면서 일찍부터 음악을 좋아하는 활발하고 감수성 있는 아이로 성장해 갔다. 그에게 성장 과정의 가난은 오히려 다른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삶을 살고자 하는 종교적 자각의 배경이 되었다. 나아가 훗날 톤즈의 가난한 아이들과도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1987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이태석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수료한 뒤 군의관 복무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그는 안정된 의사의 삶을 포기하고 가톨릭 사제가 되는 길을 택했다. 어머니와 가족의 만류를 눈물로 설득한 이태석은 1991년 살레시오회에 입회하고, 이듬해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였다.

1997년 본격적인 신학 공부를 위해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 신학부로 유학을 떠난 이태석은 자신의 선교지를 찾던 중 1999년 여름방학 기간에 당시 전쟁 중이었던 남수단의 톤즈를 최초로 방문하였다. 톤즈의 열악하고 비참한 모습에 크게 놀란 이태석은 이곳에서 선교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2001년 마침내 사제 서품을 받고 신부가 된 이태석은 같은 해 12월 처음 결심대로 톤즈로 다시 갔다. 그리고 이후 7년 동안 톤즈에서 차분히 의료와 선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해 나갔다.

이태석은 톤즈에서 반경 100 km 내의 유일한 의사였다. 하루에 200명, 많게는 300명이나 되는 환자들이 그의 치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섰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말라리아, 장티푸스, 콜레라, 결핵, 한센병 같은 감염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부족간 전쟁으로 총상이나 자상을 입은 환자들도 이태석의 손을 거쳐 갔다. 이태석은 급한 대로 "마른 풀과 대나무를 이용해 만든 움막 같은 집"을 최초의 진료소로 삼았다. 이 초라한 진료소는 2004년 그가 직접 벽돌을 구워 가며 지은 12개의 병실이 있는 시멘트 건물로 발전하였다.

이태석은 살레시오회를 창설한 돈 보스코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교육은 이곳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의 교육에도 많은 열정을 쏟았다. "학교가 없어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을 위해 전쟁 중 폭격으로 폐허가 된 학교 건물을 보수하여 초·중·고등학교 11년 과정을 차근차근 꾸려 나갔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이태석은 학생들에게 손수 음악을 가르치기도 했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 총 대신 악기를 쥐여 주고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치료해 주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음악반은 훗날 35명으로 구성된 브라스밴드부로 성장하였다.

공식 후원회인 사단법인 수단어린이장학회가 결성되고, 톤즈의 의료선교와 학생교육도 본궤도에 올라 한창이던 2008년 11월, 이태석은 건강검진에서 예기치 않은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이때부터 그는 톤즈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다. 투병 중에도 이태석은 늘 톤즈와 아이들을 잊지 않고 걱정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았던 이태석은 2010년 1월 14일 오전 5시 35분 선종하였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을 실천한 이태석은 48세의 생을 마감하고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다. 그러나 그가 남기고 간 향기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나눔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 주고 있다.

글: 인제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김택중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4739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75

TEL: 051-890-6625 FAX: 051-895-1864

홈페이지: <http://med.inje.ac.kr>